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 어려울 때일수록 영적 리더가 중요하다. 그 어려운 시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답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돕는 자들이 영적 리더이다.
 일단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 리더이다. 특히 어린 시절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영적 리더십은 절대적이다.
 모든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뿐 아니라 세상의 영적 리더로 세워진 것이다(영적 파수꾼, 영적 대사, 영적 의사)
다른 것이 다 부족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성도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며 사는 이유는 이 축복을 놓쳐서 그렇다. 살리고, 다스리고, 축복하는 자가 아니면 반대로 죽이고, 짓밟히고, 고통 당하며 살 수 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신 언약의 행이 이것이다(사6:13, 사49:6, 사55:4, 사60:1-2). 반드시 세가지 축복을 놓치지 말고 살면 된다. 계속되는 실패, 거기서 오는 우울증, 공황장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이 세가지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 된다. 내 인생을 이 세가지로 재편집, 재설계, 재디자인해야 한다.

1.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나의 정체성의 축복이다.

1) 결국 마귀가 뺏어간 것이 이것이다. 정체성 상실이다.

① 첫 인생 하와에게 찾아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자가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②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였던 것이다.

이것을 놓치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느날 내 안에 마귀 형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니 사는 게 실패요, 고통이요, 저주가 된 것이다(그것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 12가지). 그 속에서 사단은 계속 우리 안에 비교의식, 경쟁의식, 패배의식, 패배자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2) 이 축복을 회복하라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정체성 회복이다.

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고후5:17).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한 인생이 된 것이다(계3:20, 고전3:16, 요14:16-18)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인생을 자녀라고 하시고(요1:12, 롬8:15)), 랍넛트 “남은 자”라고 하시고(롬10:5), 땅끝까지 모든 문제와 사건에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다(행1:8)

② 이제라도 내 인생의 기준, 수준, 표준을 이 복음으로 바꾸고, 매일 갱신하는 삶을 살면 된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했다(롬8:30)

내 안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다(빌1:6).

③ 그래서 구원받은 순간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인을 치셨다고 했다(엡1:12)

인을 치셨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나를 쓰이기 위해 구별해 놓으셨다는 의미이다. 본문에 다윗을 택하셨다고 했다(70절). 일방적으로 기쁨을 부으시기까지 했다(삼상16:13).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이 축복이다(갈3:27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의미)

2. 이제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축복부터 누려야 한다(영성의 축복, 영적 씨앗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축복이다.

양의 우리에서 양을 먹이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이 축복 때문이다.

다윗만이 아니다. 모든 랍넛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그 시대의 영적 리더가 된 것이다(창41:38, 삼상3:19)

1) 이 축복을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누린 것이다. 부모가 이것을 도와야 한다.

그래서 부모의 영성이 중요하다. 다 양보해도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이 축복을 전달해주어야 한다.

부모가 말씀을 전달하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며, 부모가 자녀의 기도 배경이 되어주어야 한다.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과 우리 랍넛트 사역자들은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2)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한다(24의 축복).

다윗이 양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부르며, 시를 쓴 것이다(영성의 기초가 된 것).

아버지가 맡긴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양들을 보살핀 것이다(성실한 인성의 기초가 된 것)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계속 한 것이다(훗날 골리앗을 무너뜨린 무기와 전문성의 기초가 된 것)

3) 이렇게 준비된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시간이 온 것이다(25의 축복).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양을 다스리는 목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다. 왕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백성을 다스린 것이다(성막과 예배 중심의 삶)

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였고(삼하7:16),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영원의 축복).

3.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따라오는 축복이 또 하나 있다. 낮은 곳으로 가는 축복이다(사명자의 축복).

육의 사람들은 높아지려고만 한다. 그래서 경쟁하고, 싸운다. 그런 지도자들만 있어 사람들이 고통하는 것이다. 영적인 축복은 가장 높은 곳을 누리는 축복이다(보좌의 축복). 그 축복을 가지고 낮은 곳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모델이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빌2:6-8).

1) 지금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가? 지금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다(오직의 축복)

골리앗을 이기고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나 거기서 오직을 체험한 것이다(시62:1-2).

2) 그 낮은 자리에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만남의 축복과 나만 할 수 있는 미션을 찾은 것이다(유일성의 축복)

자기 같이 아프고 방황하던 자 400명을 만나는데, 그들이 평생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 된 것이다(삼상22:1-2)

거기서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리더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히4:15).

3) 이 다윗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이다(재창조의 축복)

“구주를 생각만 해도”의 작시자인 버나드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둬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위해 만민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다.

결론-가장 낮은 곳에서는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라. 높은 곳으로 갈수록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영적 리더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양보하고, 다 잃어 버려도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얻는 자들이다.